

주식전략

주식전략 담당 이상연

lee.sang-yeon@shinyoung.com

금리와 환율의 시소

분석의 기본가정

- 장기 금리 상승의 원인이 다변화 중으로 9월 이벤트별 시나리오 점검 필요
- 원화의 절상 속도는 빠르나 레벨 측면에서는 여전히 약세권 → 수출주는 개별 기업별 환헤지 비중에 따른 차별화, 내수주는 인바운드 소비 강세와 3분기 계절성 주목

금리: 무엇이 올랐는지부터 나눠야 한다

9월은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다음 모멘텀까지 공백이 생기는 구간이다. 이런 달일 수록 매크로 변수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는 높아지기 마련이며, 그 중심에는 단연 장기금리가 놓여 있다. 다만 '장기금리가 올랐다'는 문장에 곧바로 반응하기보다, 무엇이 그 금리를 밀어올렸는지 실체를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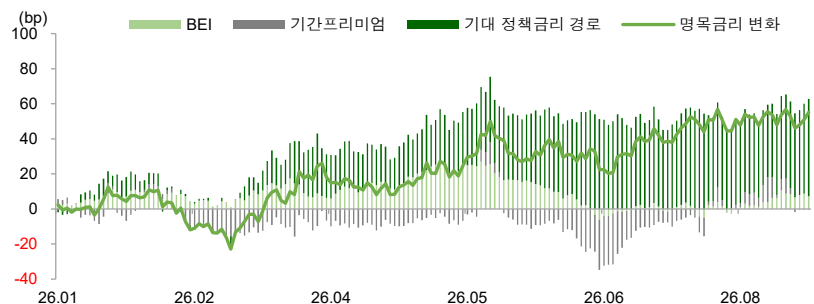
다만 최근 석 달은 결이 다르다. 기간프리미엄 월평균이 6월 0.59에서 8월 0.80으로 올라 2015년 이후 가장 높고, BEI도 6월 저점 대비 13bp 되돌렸다. 올해 금리 상승의 정체는 인하 기대의 소멸이었으나, 최근 들어 구조적 요인이 가세하기 시작했다는 판단이다. 장기금리가 빠르게 내려오기 어렵다는 판단은 유지하되 이를 2022년형 긴축 충격과 같은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환율: 방어와 수요를 나눠서 볼 필요

두 번째 축은 환율이다. 원/달러는 6월 고점 1,559원에서 8월 말 1,380원까지 11.5% 하락했다. 속도는 분명 빠르나 레벨은 다른 이야기를 한다. 팬데믹 이전(2016~19년) 평균 1,139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21% 높고, 2024~25년 평균 1,393원과는 사실상 같은 수준이다. 원화가 강해졌다고보다 과도하게 약했던 원화가 되돌아오는 국면으로 보는 편이 정확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접근도 둘로 갈린다. 수출주는 절상 속도를 건디는 힘, 즉 환헤지 비율이 방어선이 된다. 내수 쪽에서는 인바운드 관광에 주목한다. 절상 속도는 역풍이나 레벨은 여전히 외국인에게 우호적이며, 실제로 원화가 절상되는 동안에도 7월 입국자는 전년 대비 20.8% 늘었다. 여기에 3분기는 연중 관광 입국자가 가장 두꺼운 분기라는 계절성이 겹치는 시기이다.

항목별 명목금리 상승 기여도



금리: 무엇이 올랐는지부터 나눠봐야 한다

(1) 금리가 오르는 이유는 다양하다

9월은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고 다음 모멘텀까지 공백이 생기는 구간이다. 이런 달일수록 매크로 변수에 대한 시장의 민감도는 높아지기 마련이며, 그 중심에는 단연 장기금리가 놓여 있다. 다만 '장기금리가 올랐다'는 문장에 곧바로 반응하기보다, 무엇이 그 금리를 밀어올렸는지 실체를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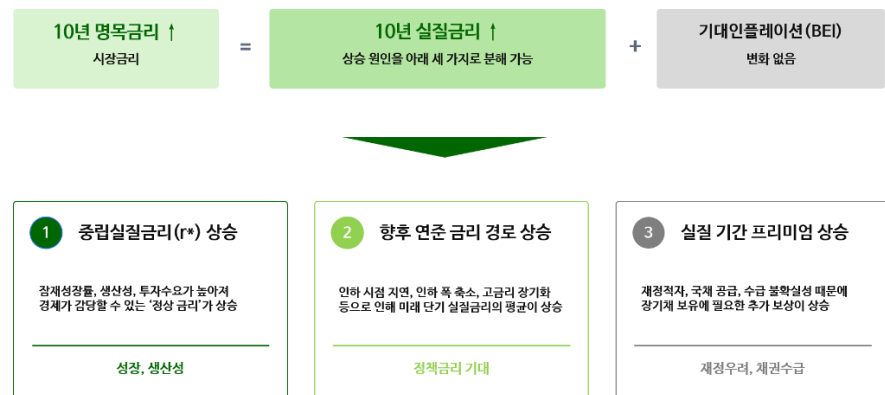
연초 이후 10년물 +55bp
이 중 기대인플레이션은 +7bp
나머지 48bp가 실질금리

우선 일차적으로 명목금리는 실질금리와 기대인플레이션(BEI)의 합으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실질금리는 다시 기간프리미엄(term premium)과 기대 정책금리 경로로 나눌 수 있다. 그런데 연초 이후 미 10년물 상승분 55bp를 분해하면 기대인플레이션은 7bp 움직이는 데 그쳤고 실질금리가 48bp를 설명한다. 실제로 헤드라인 CPI가 2.7%에서 3.4%로 올라오는 동안에도 시장의 장기 기대는 6월 이후 사실상 고정돼 있었다는 의미다.

기대 인플레이션 기여도는
6월부터 미미한 상황,
결국 연초부터 지금까지
정책금리 경로가
실질금리 상승을 주도

그렇다면 실질금리를 밀어올린 것은 무엇인가. 연초부터 5월까지의 구간에서는 기대 정책금리 경로가 대부분을 설명한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정책금리를 3.75%로 인하한 뒤 8개월째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 사이 CPI는 1월 2.4%에서 5월 4.2%까지 상승했다. 시장은 그 과정에서 인하 시나리오를 걷어냈고 그만큼이 실질금리로 나타난 것이다. 이 구간까지만 놓고 보면 재정이나 수급보다 통화정책 경로가 장기금리를 끌어올린 힘이었던 판판이다.

도표 1. 명목금리 = 실질금리 + 기대 인플레이션



자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도표 2. 항목별 명목금리 상승 기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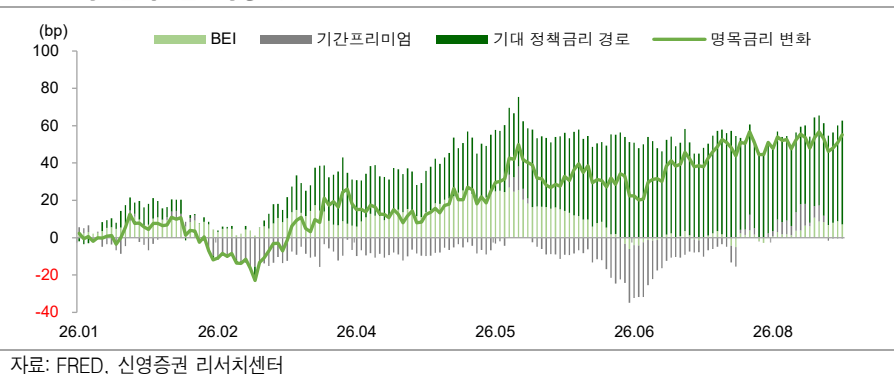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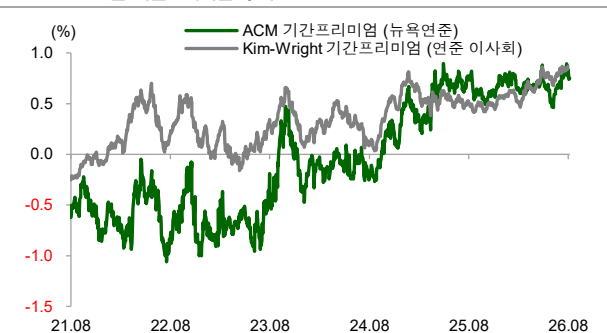


도표 3. 10년 기대인플레이션(BEI)추이



도표 4. 10년 기간프리미엄 추이



기간프리미엄 월평균

6월 59bp
7월 68bp
8월 80bp

물론 최근 2달로 시계열을 짧게 자르면 이야기가 하나 더 붙는다. 6월 말부터 7월 말까지 한 달 동안 30년물이 32bp, 기간프리미엄이 33bp(뉴욕연준 기준) 뛰었다. 올해 유일하게 장기물이 앞장선 구간이고 성격이 분명한 재정 및 수급 이벤트였다. 참고로 현재 기간프리미엄 87bp는 2020년 이후 평균이 -22bp였다는 점에서는 이미 뉴노멀 구간을 벗어나 있기도 하다. 전환의 기준선을 100bp 돌파 여부에 두고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BEI도 6월 저점 대비
13bp 반등

기대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다. 10년 BEI는 6월 24일 2.19%로 저점을 찍은 뒤 8월 말 2.32%까지 13bp 되돌렸다. 2022년 최고치 3.04%는 물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의 2.58%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나, 방향만 놓고 보면 6월 이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시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연초 이후 실질금리가 정책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하며 상승한 것은 사실이나 최근 구간에서는 기간프리미엄과 기대인플레이션이 동시에 가세하는 그림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이다.

장단기 커브는 아직 명확한
신호를 주고 있지는 않음

다만, 기간프리미엄이 구조적으로 오르는 국면이라면 장기물이 앞장서는 스티프닝이 커브에도 함께 나타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이 신호가 아직 충분히 선명하지 않아 보인다. 5월 평균과 비교하면 30년물이 19.7bp, 10년물이 19.8bp 올라 기울기 변화가 거의 없었다. 물론 기준을 기간프리미엄이 저점을 찍은 6월로 옮겨 보면 30년-10년 스프레드가 48bp에서 55bp로, 10년-2년은 35bp에서 47bp로 벌어지기 시작해 이제 막 반응에 나선 단계에 가깝다고 보는 편이 적절할 듯하다. 다만 잭스홀 미팅에서의 위시 의장 발언을 소화하며 단기물이 빠르게 올라온 탓에 장단기 커브는 다시금 그 폭을 축소할 상황이다. 아직 그 폭이 크지 않은 만큼, 기간프리미엄과 커브가 같은 방향을 좀 더 분명하게 가리키는지가 9월에 확인해볼 첫 번째 과제라는 생각이다.

9/11 CPI와
9/15~16 점도표에서
정책금리 향방을 확인

9/30 예산안 시한과
9/17 BOJ는
초장기 금리에 영향

고용은 유의미한 변화가
어렵고 연준의 관심사는
물가에 초집중

(2) 9월 미리보기

올해 금리 상승의 본체가 정책금리 경로라면 9월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도 그 경로를 건드리는 쪽이다. 11일 발표되는 8월 CPI에서 코어가 다시 3%대로 올라선다면 인하 기대는 더 후퇴하고 단기물이 더 크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15~16일 FOMC의 점도표는 정책금리의 경로 자체를 문서로 확인하는 자리다. 2027년 인하 횟수가 줄거나 터미널 금리 전망이 올라가면 2년물이 직격을 받는다.

반면 30일 예산안 합의 시한과 17일 BOJ 금정위는 성격이 다르다. 셋다운이나 적자를 확대하는 형태의 타결은 국제 발행 부담을 통해 30년물과 기간프리미엄을 자극한다. 7월에 한 차례 나타났던 그림이 재현되는 경로다. BOJ가 인상에 나설 경우 JGB 초장기물 급등이 글로벌 장기물로 전이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봐야 한다. 두 이벤트는 상승의 방향은 같으나 커브의 모양을 다르게 만든다는 점에서 구분이 필요하다.

올해 시장금리 상승분의 대부분이 인하 기대를 걷어낸 결과라면 그 기대가 복원되는 순간 금리의 되돌림도 빠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8월 고용보고서에서 고용의 균열이 확인되며 인하 기대가 되살아나겠으나 현재로서 고용에서의 유의미한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1일 CPI에서 코어가 2%대에 안착하는 경우, 그리고 점도표가 유지되며 연내 인하가 시사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2년물부터 무너진다. 정리하면 9월에 확인할 것은 금리의 방향뿐만 아니라 커브의 어디가 더 움직이는가다. 2년물이 끝낸 지금까지의 순환적 구도가 이어지고, 30년물과 기간프리미엄이 풀기 시작하면 구조적 전환을 의심해야 한다. 15~16일 FOMC와 30일 예산안 시한이 그 분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

도표 5. 9월 주요 이벤트의 금리 상승, 하락 트리거



주) 해당 이벤트가 우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채권 만기 구간을 임의로 분류
자료: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3) 2022년과 무엇이 다른가

기억부터 바로잡을 필요
2022년 S&P500
상반기 -20.6%
하반기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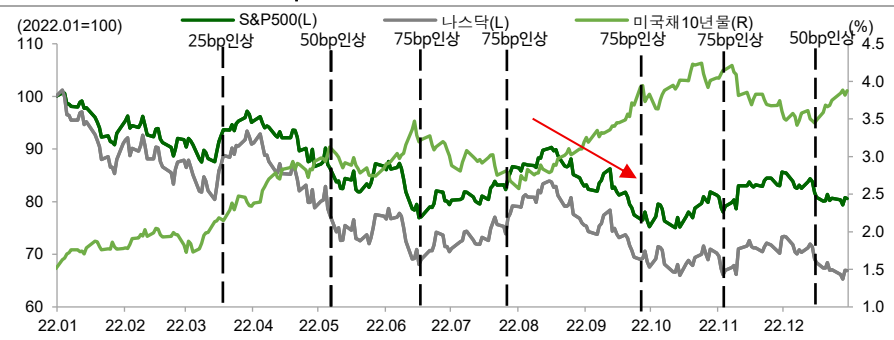
이유가 어쨌든 투자자들이 시장금리 상승을 반가워하지 않는 것은 2022년 하반기의 경험 때문일 것이다. 다만 실제 수치는 조금 다르다. S&P500 기준 2022년의 하락은 상반기에 집중됐고(1~6월 -20.6%) 하반기는 오히려 +1.4%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투자자들이 하반기 하락에 대해 강렬한 기억을 갖고 있는 것은 8월 16일부터 10월 12일까지의 -16.9% 구간 때문일 것이다. 게다가 이 구간은 10년물이 직전 3개월 동안 140bp 급등한 시점과 정확히 겹친다.

중요한 것은 시장금리
변화의 속도:
얼마나 급하게 상승하는가

즉 당시 증시를 흔든 것은 금리의 절대 수준이 아니라 변화의 속도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참고로 2022년 10월의 10년물은 4.05%로 현재의 4.72%보다 오히려 낮았다. 그럼에도 시장이 훨씬 크게 흔들린 이유는 정책 금리의 75bp 인상(자이언트 스텝)이 연거푸 이루어지고 2년물이 160bp 움직이는 환경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시장은 언제라도 연준이 정책 금리를 인상할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반영하고 있지만 아직은 정책금리가 동결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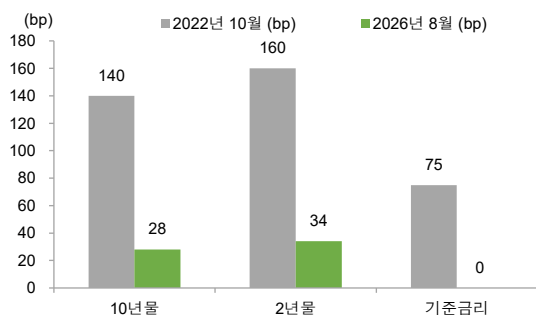
물론 여러가지 이유로 장기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못할 환경이라는 판단은 유지한다. 정부부채와 팬데믹 이후 누적된 유동성, 높아진 임금 수준은 실재하는 힘이며 7월의 기간프리미엄 급등이 그 예고편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다만 현재 시장이 경계하는 대상은 그 구조적 힘이 아니라 2022년의 잔상에 가깝고, 두 국면은 데이터상 겹치지 않는다. 금리가 높은 것과 금리가 빠르게 오르는 것은 시장에 전혀 다른 사건이며, 2022년은 후자였고 지금은 전자에 가깝다는 생각이다.

도표 6. 2022년 정책금리 425bp 인상의 여정과 주가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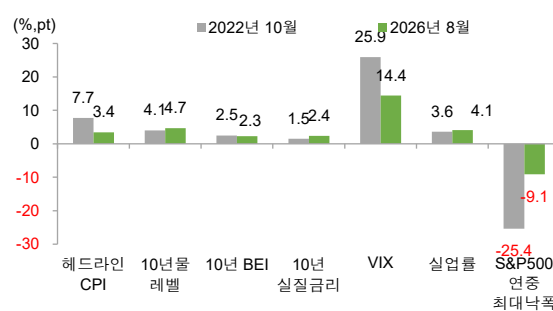
주) S&P500, 나스닥 지수는 연초=100 기준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7. 2022년 10월, 2026년 8월(현재) 금리 변화 비교



주) 직전 3개월 전과의 비교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8. 2022년 10월, 2026년 8월(현재) 주요 금융 지표 비교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현재 1,380원
6월 고점 대비 -11.5%
2016년 이후 81 백분위

강해진 것이 아니라
되돌아오는 국면

환율: 방어와 수요를 나눠서 볼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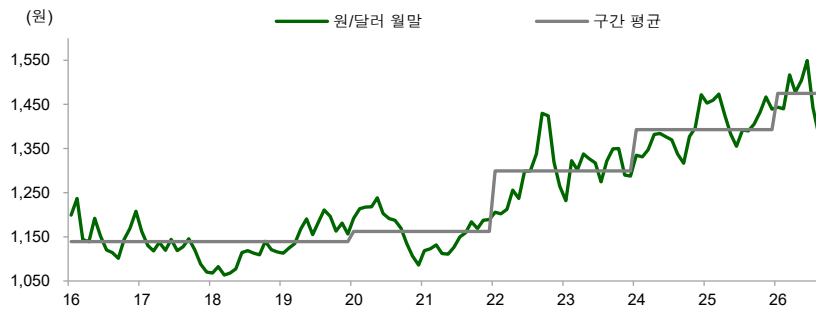
(1) 속도는 빨랐지만 레벨은 여전히 약세권

두 번째 측은 환율이다. 원/달러는 6월 5일 1,559원에서 8월 말 1,380원까지 11.5% 하락했다. 두 달 남짓한 기간의 변화라는 점에서 속도는 분명 빠르다. 다만 속도와 레벨은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2016년 이후 일별 분포에서 현재 1,380원은 81 백분위에 해당한다. 지난 10년 가운데 81%의 기간보다 원화가 약한 수준이라는 의미다.

팬데믹 이전 구간과 비교하면 차이가 더 뚜렷하다. 2016~19년 원/달러는 평균 1,139원, 최고치가 1,239원이었다. 현재 수준은 그 시기 어느 날보다도 원화가 약하며 평균 대비로는 21% 높다. 절상 요인 역시 대외가 아니다. 7월 1일 이후 원/달러가 11.1% 하락하는 동안 달러지수는 1.7% 내리는 데 그쳤기 때문이다.

정리하면 이번 국면은 단순히 원화가 강해지는 것 말고도 과도하게 약했던 원화가 정상 범위로 되돌아오는 국면의 초입으로 보인다. 속도는 수출 기업 실적에 일부 부담일 수 있겠으나 레벨 자체는 수출 경쟁력과 인바운드 소비 수요 양쪽 모두에 아직 우호적인 구간이라는 판단이다. 이 구분이 아래 두 아이디어의 전제가 된다.

도표 9. 2022년 10월과 현재의 금리 변화 속도 비교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0. 구간별 원/달러 환율 평균

구간	원/달러
2016~19 팬데믹 이전	1,139.3
2020~21 팬데믹	1,162.3
2022~23 긴축기	1,299.2
2024~25	1,392.8
2026 상반기	1,475.0
현재 (8/30)	1,379.5

자료: Bloomberg,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절상 속도는 부담
레벨은 아직 우호적

(2) 수출주: 환헤지 비율이 방어선이 된다

수출기업에게 원화 강세는 기본적으로 악재다. 따라서 이 국면에서 찾아야 할 대상은 수혜주가 아니라 훼손이 덜한 기업이며, 그 판단 기준으로 환헤지 비율을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레벨이 여전히 우호적이라 해도 분기 실적에 반영되는 것은 해당 기간의 평균 환율과 변화폭인 만큼 두 달 만의 11.5% 절상은 3분기 실적에 일정부분 부담으로 남을 수 밖에 없다.

다만, 환헤지는
구조적 수혜가 아니라
시간을 버는 수단

예상 수출대금과 매출채권의 상당분을 선물환으로 고정해 둔 기업은 원화가 절상되는 구간에서 환산손실을 상당 부분 차단한다. 다만 두 가지 단서가 필요하다. 첫째, 통상적인 헤지 만기가 3~6개월인 만큼 방어 효과는 한시적이다. 절상이 추세로 굳어지면 결국 노출되며 헤지는 수혜가 아니라 시간을 버는 수단에 가깝다. 둘째, 헤지 비율은 분기 사업보고서의 파생상품 주식에서 개별 확인해야 하는 항목으로 업종 단위의 일괄 적용이 어렵다. 종목 단위 확인이 전제되는 아이디어라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3) 내수주: 3분기 인바운드가 가장 두껍다

2026년 1~7월 입국자
1,279만명으로
전년 대비 +21.3%

내수 쪽에서는 수출 성장으로 멀티플이 높아진 테마 보다는 인바운드 소비 테마를 볼 만하다고 판단한다. 다만 성격을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원화 절상은 외국인이 부담하는 한국 여행 비용을 높이는 만큼 방향만 놓고 보면 인바운드에 역풍이며 환율 수혜 스토리와 대치되어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확인한 원/달러 환율의 레벨이 여기서 의미를 갖는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2024~2025년 구간 평균과 유사한 레벨이기 때문에 외국인이 체감하는 한국 여행의 가격 매력은 유지되고 있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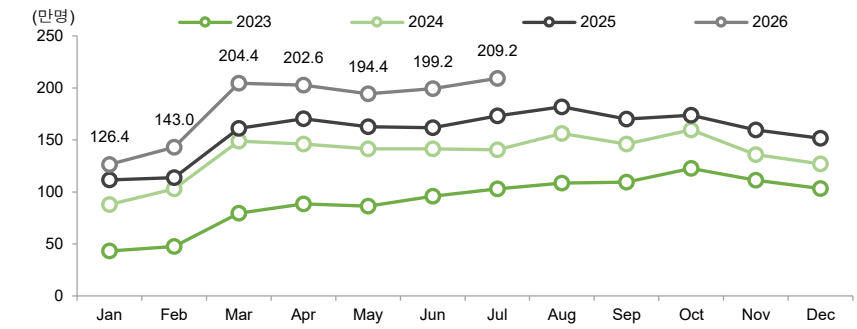
증가폭 자체도 회복 국면을 넘어선 수준이다. 2026년 1~7월 누계 입국자는 1,279만명으로 전년 대비 21.3% 늘었다. 국가별 증가율로 보면 대만이 +32.9%로 가장 높고 중국(+27.5%), 일본(+18.8%), 홍콩(+17.5%)이 뒤를 잇는다. 상위권이 모두 인접 국가로 채워져 있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지역별로도 아시아가 22.8% 늘어 그 외 지역(+15.4%)을 크게 앞섰고, 전체 입국자의 81%가 아시아에서 유입되고 있다. 원거리 수요보다 역내 수요의 개선이 이번 반등을 이끌고 있다는 의미다. 이동 거리가 짧아 여행 빈도가 높고 경기나 환율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민감한 수요라는 점에서 지속성을 기대할 만하다는 생각이다.

3분기 비중 28.0%
다만 4분기와는 차이는
크지 않다는 점도 감안

계절성도 우호적이다. 2023~25년 평균 기준 연간 입국자의 28.0%가 3분기에 집중돼 분기 중 가장 두껍다. 다만 4분기 비중이 27.4%로 차이가 크지 않고 월 단위로는 10월이 연중 최대라는 점은 함께 감안할 필요가 있다. 3분기 단독의 계절성보다는 하반기 전체에 55% 이상이 몰린다는 구조로 이해하는 편이 정확하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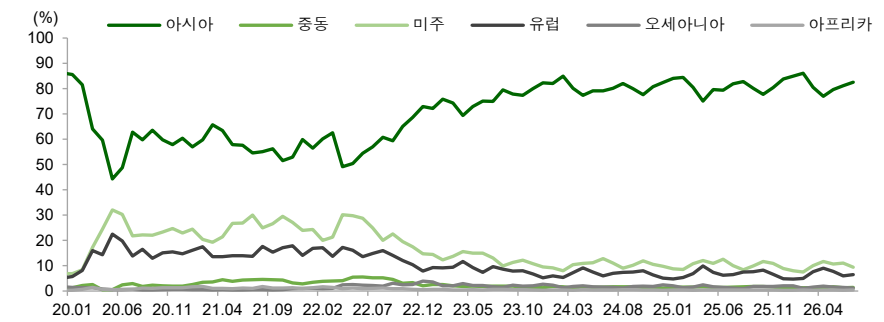
정리하면 국내 주식투자자 관점에서는 원화 강세를 속도와 레벨을 나누어 바라볼 필요가 있다. 수출주는 절상 속도의 훼손을 덜 받는 쪽을 고르는 방어적 선별이고, 인바운드는 레벨이 여전히 우호적인 구간에 구조적 수요와 3분기 계절성이 겹치는 영역이다. 전자는 종목 단위 확인이, 후자는 3분기 실적 확인이 각각 전제된다는 점에서 접근 속도를 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다.

도표 11.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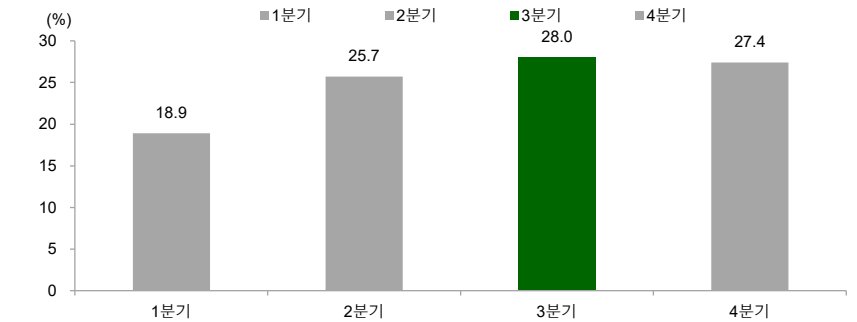
자료: 한국관광공사,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2. 대륙별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비중 추이



자료: 한국관광공사,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3. 외국인 관광객 입국자 수 계절성, 3분기/4분기에 집중



주) 2023~2025 기준

자료: 한국관광공사,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8/28 KOSPI 종가
6,788pt,
주간 수익률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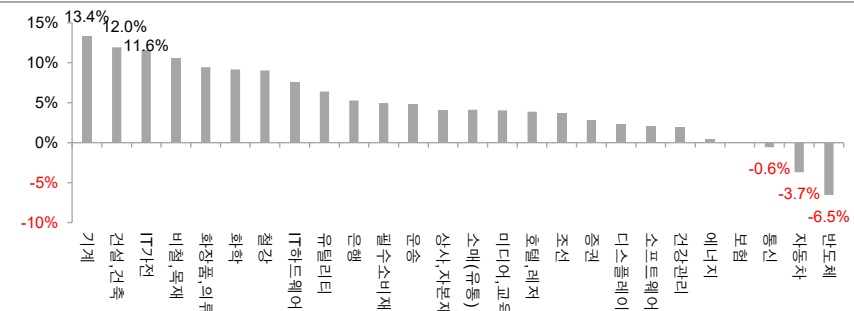
여전히 코어는
IT+산업재이지만
보험, 화장품/의류,
에너지 등 이익 모멘텀도
순환이 지속되고 있음

한국 증시 동향

지난주 KOSPI는 6,788pt로 마감하며 주간 수익률 -1.8%를 기록했다. 주 초 삼성전자
의 주주환원 정책이 높아진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며 반도체 대형주를 중심으로 큰 폭
의 조정이 나타났으나, 이후 국제유가 안정과 엔비디아 호실적에 힘입어 3거래일 연속
반등했다. 다만 한국은행의 연속 금리 인상에 이어 잭슨홀 미팅을 앞둔 경계심리가 높아
지면서 주 후반 차익실현 매물이 재차 출회되며 상승분을 일부 반납했다.

한편 주가지수 부진에도 불구하고 KOSPI는 건조한 이익 모멘텀을 이어갔다. 반도체, 여
전히 기술 업종(반도체, IT가전)과 산업재(조선, 기계)의 건조함이 유지되는 가운데, 에너
지, 보험, 화장품/의류 등으로도 이익 개선세가 확산되고 있다. 실제로 반도체 외의 여타
업종으로의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로 보인다.

도표 14. 한국 증시 업종별 주간 수익률(~2026.08.28)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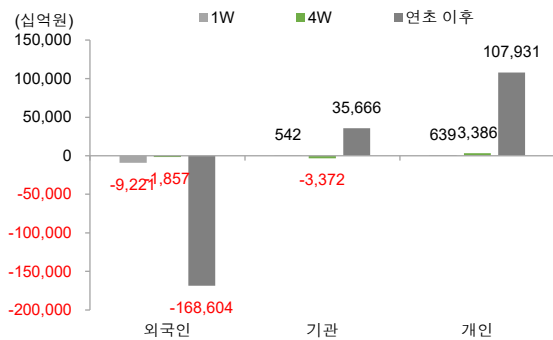
도표 15. 한국 주간 업종별 수익률 및 12MF EPS 추정치 변동 테이블(~2026.08.28)

	주간 수익률 (%)					12M fwd EPS 추정치 변동 (%MoM)				
	07.31	08.07	08.14	08.21	08.28	07.31	08.07	08.14	08.21	08.28
KOSPI	-1.4	-5.1	11.5	-0.9	-1.8	7.2	5.3	4.0	5.1	5.2
KOSDAQ	-3.8	11.0	8.2	-7.3	4.5	3.2	2.3	2.3	2.4	1.6
에너지	-14.9	4.7	11.5	-2.9	0.4	5.4	5.5	7.5	23.4	22.2
화학	-4.8	11.4	4.5	-9.0	9.2	11.4	7.1	0.5	2.0	-1.9
비철/소재	-5.2	11.8	6.4	0.7	10.6	1.7	-1.1	-1.4	0.2	-0.1
철강	-1.0	6.6	1.6	-7.3	9.1	0.1	-0.0	5.5	5.0	4.7
건설/건축	-9.3	14.6	5.1	-6.9	12.0	2.6	4.1	3.7	2.9	0.8
기계	-8.9	13.0	6.5	-10.3	13.4	4.6	4.4	6.6	6.2	3.7
조선	-4.5	5.6	2.3	-10.0	3.7	5.7	9.2	11.2	12.9	12.5
상사/자본재	-5.5	8.6	5.7	-5.5	4.1	2.8	4.0	4.0	3.1	8.6
운송	-0.8	4.7	-0.9	-1.5	4.9	11.8	10.4	8.1	5.6	5.5
자동차	-1.6	3.3	10.0	-8.6	-3.7	1.5	1.2	1.1	1.3	0.7
화장품/의류	-0.8	10.1	1.5	-2.2	9.4	4.7	5.1	5.4	5.5	5.6
호텔/레저	-0.7	4.9	0.0	-0.9	3.9	-0.9	0.4	0.3	0.4	-0.5
미디어/교육	-8.3	7.7	-3.1	-4.6	4.1	1.6	0.5	-0.8	-1.5	-1.2
유통	-6.8	2.7	1.7	-4.7	4.1	0.4	1.6	-0.7	-1.1	-0.7
음식료/담배	-0.4	5.8	-2.4	-1.5	5.0	1.1	2.3	2.0	2.4	2.5
헬스케어	-1.8	13.9	2.8	-5.3	2.0	1.7	1.3	1.1	1.0	0.8
은행	-2.0	5.6	-2.4	-3.4	5.3	2.0	1.7	1.1	1.1	0.4
증권	-2.4	-3.0	4.1	-5.9	2.9	3.3	1.3	-0.5	-0.4	-0.6
보험	-2.6	-3.4	4.7	6.5	0.0	8.1	8.0	10.4	12.3	16.0
소프트웨어	0.3	4.7	5.6	-5.5	2.0	-0.5	0.7	-0.0	-0.0	0.0
IT하드웨어	-12.0	12.1	18.2	-14.1	7.6	17.1	14.5	11.6	11.6	9.5
반도체	1.1	-13.6	17.7	3.0	-6.5	8.1	5.6	4.2	5.2	5.3
IT가전	-4.6	13.0	11.1	-8.6	11.6	11.4	14.4	9.8	9.0	8.4
디스플레이	-5.2	7.1	6.9	-6.6	2.3	-15.5	-13.0	-13.6	-13.6	-0.6
통신	-11.2	5.2	7.2	0.1	-0.6	2.4	3.9	3.5	2.6	2.3
유틸리티	-3.3	3.8	-3.5	-4.8	6.4	7.9	3.2	-11.4	-14.0	-14.7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지난 한 주간 외국인은 KOSPI는 순매도했으나 KOSDAQ은 순매수했다. 업종별로는 IT 하드웨어, 소매(유통), 기계, 운송, 조선을 순매수 했으나 반도체 순매도액이 크게 확대되며 증시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다. 기관은 반대로 KOSPI를 순매수하고 KOSDAQ을 순매도 했으나 반도체에 대한 순매도는 외국인과 동일했다. 업종별로는 IT가전, 기계, 건설/건축, 은행, 화장품/의류를 순매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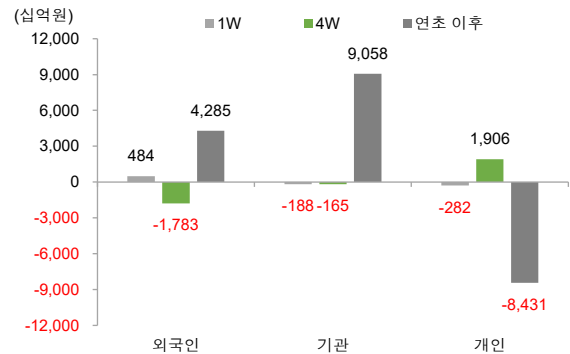
도표 16. KOSPI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현황



주) 2026.08.28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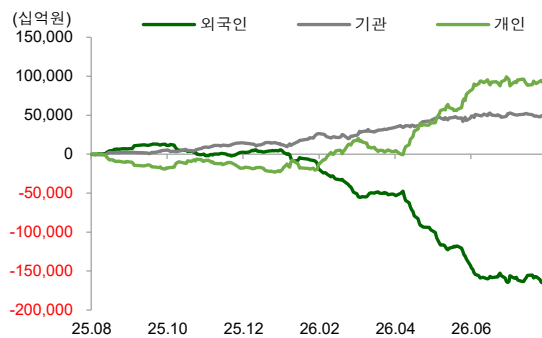
도표 17. KOSDAQ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현황



주) 2026.08.28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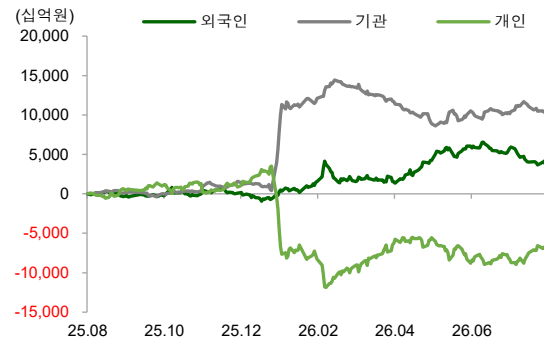
도표 18. KOSPI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추이



주) 2026.08.28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19. KOSDAQ 투자주체별 누적 순매수 추이



주) 2026.08.28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0. 주간 외국인 순매수/순매도 상위 업종

업종		순매수/매도 대금(십억원)
순매수 TOP5	IT하드웨어	565.2
	소매(유통)	206.7
	기계	170.3
	운송	149.9
	조선	125.2
순매도 TOP5	반도체	-6,718.3
	자동차	-424.7
	건설/건축	-211.1
	은행	-132.7
	건강관리	-125.0

주) 2026.08.28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도표 21. 주간 기관 순매수/순매도 상위 업종

업종		순매수/매도 대금(십억원)
순매수 TOP5	IT가전	722.7
	기계	641.1
	건설/건축	371.5
	은행	341.8
	화장품/의류	291.9
순매도 TOP5	반도체	-3,718.1
	자동차	-450.5
	소매(유통)	-170.9
	증권	-58.9
	디스플레이	-58.9

주) 2026.08.28 기준

자료 : 에프앤가이드(FnGuide),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이벤트 캘린더

월	화	수	목	금
8/31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 한 7월 산업생산 한 7월 소매판매	9/1 한 8월 수출입동향 미 7월 JOLTS 보고서 미 8월 ISM 제조업 지수 PANW	9/2 미 8월 ADP 민간 고용 AVGO, HPE	9/3 미 8월 ISM 서비스업 지수 DELL, LULU	9/4 미 8월 고용보고서 미 8월 실업률
9/7	9/8	9/9	9/10 ECB 통화정책회의 미 8월 PPI ADBE	9/11 BRICS 정상회의(12~13일) 미 8월 CPI
9/14	9/15 연준 FOMC(~16일)	9/16 미8월 소매판매	9/17 BOJ 금융정책위원회 BOE 통화정책위원회 CCL	9/18
ORCL				
9/21	9/22	9/23	9/24 미·중 정상회담(예정) COST, NKE	9/25
9/28	9/29 미 8월 JOLTS 보고서 MU	9/30 미 예산안 합의 시한 미 8월 PCE 미 9월 ADP 민간 고용	10/1	10/2

주) 기업 실적 발표일은 추후 변동 가능, 각국 일정은 현지시간 기준
자료 : 신영증권 리서치센터 정리

Compliance Notice

이 조사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이 조사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이 조사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조사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

할 수 없습니다.